

# 정치적 이해 따라 오락가락...경기도 20%·광주 3%

### 1999~2020년 21년간 예타 통과·면제 사업 지역별 배정 살펴보니

#### 국가재정 수도권·영남권 집중투입 보수정부 광주·전남 극심한 차별

#### 전남 DJ정부서 18개 사업 예타 통과 문 정부 들어 충청권 비중 가장 높아

#### 연구개발 인프라도 수도·충청권 집중 소의·불균형 보완·조율 역할 못해

국가 재정은 민간 부문에서 수요·공급의 소외·불균형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며 조율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성장이 요구됐던 1990년대까지와는 달리 2000년대 들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전국민의 동등한 행복추구권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음에도 이 시기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경제 과도한 집중, 각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이 빚어졌다.

광주일보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공받은 '1999~2020년 예타 및 예타 면제사업'의 흐름은 국가의 균형발전이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검증과는 거리가 있었다. 보수·진보정부 모두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했고, 이른바 보수정부에서 호남, 특히 광주·전남에 대한 차별은 극심했다. 진보정부에서는 충청권에 대한 투입 비중이 높아졌다.

예타사업 경기도 최대 수혜·서울·인천·경기 등은 교통망 구축 주력=1999~2020년까지 예타 사업에서 가장 많은 사업과 예산을 독차지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와 인천이다. 경기는 기타(33조1633억원)를 제외한 21년간의 사업비 247조1598억원의 19.94%인 49조2684억원을 쟁겼다. 인천은 23조676억원(9.34%)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와 서울·인천을 잇는 교통망 구축에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갔다. 신분당선, 서울-연천 고속도로, 소사-대곡 복선전철, 서울지하철 5·7호선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계속 인구와 경제가 증가하면서 수도권은 킨텍스,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농식품허브물류센터, 평화예술의 전당, 송도컨벤시아,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 국립디지털도서관, 분당잡월드,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 첨단치료개발센터 등 문화·전사·의료·물류 관련 다양한 시설을 정부 재정 지원으로 속속 설치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각 지역별 편차 극심·정책적·경제적 타당성 검증 미흡=지역을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 사업을 제외한 247조1598억원의 예타 사업비를 17개 지자체로 분류하면, 광주·전남은 각각 14위(2.99%, 7조3941억원)와 4위(7.65%, 18조6820억원)였다.

전남은 김대중 정부에서 18개 사업(9조8619조)의 예타 통과가 순위를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광주는 오히려 김대중 정부에서 1건(3586억원)에 그쳤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6건(2조5916억원)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2009~2017) 기간 광주·전남은 10건(3조1587억원), 13건(1조2822억원)만이 겨우 예타를 넘어서면서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

영남권은 이명박 정부 68건(18조10009억원), 노무현 정부 37건(14조8076억원), 문재인 정부 21건(11조1768억원)김대중 정부 18건(11조1639억원), 박근혜 정부 31건(10조3687억원) 등 모든 정부에서 고른 지원을 받았다.

충청권은 노무현 정부 23건(13조1684억원), 문재인 정부 15건(9조416억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명박 정부 15건(6조2949억원), 김대중 정부 7건(3조2292억원), 박근혜 정부 14건(2조9575억원) 등의 순을 보였다.

강원·제주권은 박근혜 정부(7건 8조517억원), 이명박 정부(5건 6조868억원), 김대중 정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4년 8652억원의 사업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지역 내 갈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2010년 1조7394억원의 사업비로 다시 예타 문턱을 넘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9건 5조8131억원) 등에서 비교적 높은 예산을 지원받았고, 문재인 정부(6건 3조2440억원), 노무현 정부(6건 9293억원) 등에서는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기타 사업 33조1633억원도 연구개발 인프라 있는 충청권·수도권으로 분배 추정=지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사업이나 정부부처사업 83건 33조1633억원도 결국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충청권·수도권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타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58건(25조1232억원)으로 76.76%를 차지한다. 글로벌 액셀 사업(4조1738억원), 글로벌 프린터(1조1910억원), 범부처 기가 코리아사업(5501억원), 나노융합 2020(5131억원),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5650억원), 연구중심병원사업(624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소는 전국적으로 19개의 본원과 분원 및 부설까지 모두 81곳에서 운영중이며, 이 가운데 광주에는 세계김치연구소 등 6개의 분원 및 부설 기관이 있고, 전남에는 고흥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가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 관련 본원은 단 한 곳도 없다. 국가 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본원과 대형연구시설은 대부분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각 정부에서 지역별 격차가 극심하게 나는 것은 예타가 재정적·정책적 검증보다 정치적 이해타산에 의해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미 격차가 큰 만큼 이 상태에서 균등한 재정 지원은 격차를 더 극심하게 할 뿐"이라며 "낙후도를 감안한 국가 재정의 차등 지원,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대표 임기 반환점 도는 이낙연... '이대만'?

(이대로 대표만)

### 대선 지지율 20%대서 답보

###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험로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다음달 2일 실질적으로 임기 반환점을 맞게 된다. 이 대표는 당의 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9일 이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이 대표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당의 대표로서 나름 존재감을 보였다든 평가도 있지만 대선 주자로서 미래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하지 못했다든 지적도 있다.

우선 이 대표가 취임 직후,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켜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 제명이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는가 하면 지난 9월 4차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 택배·돌봄 노동자 등 정부 지원의 사각 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논란, 추미애-윤석열 갈등, 공수처 출범 등 정국 현안에 국민적 공감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의식한 듯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다'는 평가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각종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1년 가까이 지지율 선두 자리를 지키며 '이대후' (이차기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대만' (이대로 대표만)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8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첫 역전을 당한 뒤 현재는 20% 초반의 박스권 지지율을 나란히 기록하며 양강 구도에 머물고 있다. 또 친문 진영 일각에서 '제3후보론'이 거론될 정도로 당내의 확실한 지지도 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전망도 밝지 않은데다 지역 기반인 호남 지지율도 40% 초반에서 30% 후반에 그치고 있어 위기감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 이 대표가 당권을 잡아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데 부동산 문제, 추-윤 갈등, 코로나 확산 등 그가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하고는 당내 유력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 대표가 대선 티켓을 쥐기 위해서는 연말·연초에 결국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인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 격리가 해제돼 공개 활동을 재개하고 연말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예정이다. 개혁 입법과 현안 해결 과정을 통해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내년 4월 재보선 승리로 이끌면서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 대선 가도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9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정국은 누가 나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가 그래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연말 개혁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정국 현안 해결의 길을 찾아 결국 4월 재보선 승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 역대 정부 광주·전남 예타 통과·면제 건수 및 금액

<b>1999~2020년 지자체 예타 통과 및 면제 사업 535건 247조1598억원</b> 광주 19건 7조3941억원(전국 대비 2.99%)·전남 50건 18조6820억원(7.65%)
<b>김대중 정부(1999~2003) 74건 43조3939억원</b> 광주 1건 3586억원(0.83%)·전남 17건 9조8619억원(22.73%)
<b>노무현 정부(2004~2008) 131건 55조2243억원</b> 광주 6건 2조5916억원(4.69%)·전남 11건 3조8610억원(6.99%)
<b>이명박 정부(2009~2013) 150건 61조3077억원</b> 광주 6건 2조5008억원(4.10%)·전남 9건 9644억원(1.58%)
<b>박근혜 정부(2014~2017) 95건 38조8611억원</b> 광주 4건 6579억원(1.69%)·전남 4건 3178억원(0.82%)
<b>문재인 정부(2018~2020) 81건 48조5508억원</b> 광주 2건 1조2581억원(2.65%)·전남 9건 3조6768억원(7.57%)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